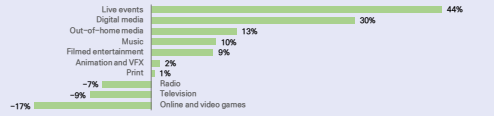
인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과 라이브 이벤트 확대에 따른 저작권 이슈 부상

사례포커스

▪ 무허가 공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인도공연권협회(IPRS)는 TVK 컬처럴 아카데미가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공연하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사전 승인과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라이브 이벤트에서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줌.

| 인도 M&E 산업 2024년 대비 2025년 부문별 성장률 |



출처 : FICCI-EY 「Media & Entertainment Industry Report 2026」

뉴스브리프

인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 산업이 디지털 미디어와 라이브 이벤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FICCI-EY[1] 「Media & Entertainment Industry Report 2026」에 따르면 **인도 M&E 산업**은 2025년 전년 대비 9.1% 성장한 2.78조 루피(원화 약 39.3조 원)[2]를 기록했음. 이 가운데 **라이브 이벤트**는 주요 M&E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 1,450억 루피(원화 약 2조 원)로 전년 대비 44% 증가됨. 유료 행사뿐 아니라 대규모 정부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등 개인 행사, 종교 행사 및 전시회 등이 성장에 기여했으며, 관객의 엔터테인먼트 참여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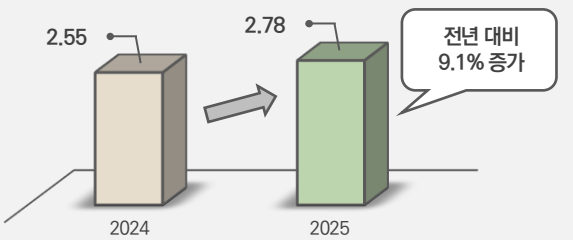
그러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확대와 함께 공연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인도공연권협회(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IPRS)는 인도의 문화행사·공연 주최기관인 TVK 컬처럴 아카데미(TVK Cultural Academy)가 **라이브 음악 행사에서 IPRS가 관리하는 음악을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려 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마드라스(Madras) 주 고등법원은 사전 승인을 받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연을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해당 사례는 행사장 허가, 경찰 승인, 후원사 확보 등은 진행하면서도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차적인 요건으로 취급해 온 일부 공연 업계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을 보여줌.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음악과 문학 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주최자는 저작권 관리단체 또는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권리자에게 배분됨.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표준화된 요금이나 통합 창구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 확대와 함께 음악 라이선스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창작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라이선스 요금의 투명성,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판단됨.

인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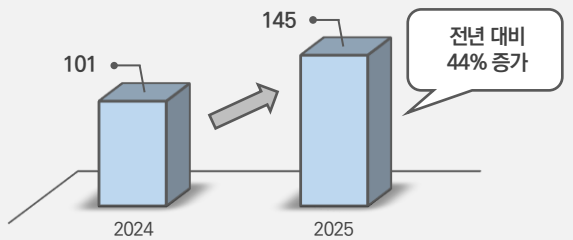
기준: 2024년&2025년, 단위: 조 루피



출처 : FICCI-EY, "Stories, scale and impact: FICCI-EY Report 2026", 2026.03.,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in/insights/media-entertainment/documents/ey-stories-scale-and-impact-unlocking-indias-media-and-entertainment-economy.pdf

인도 M&E 산업 中 라이브 이벤트 부문 시장 규모

기준: 2024년&2025년, 단위: 십억 루피



출처 : FICCI-EY, "Stories, scale and impact: FICCI-EY Report 2026", 2026.03.,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in/insights/media-entertainment/documents/ey-stories-scale-and-impact-unlocking-indias-media-and-entertainment-economy.pdf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

인도 M&E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 및 라이브 이벤트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와 함께 라이브 이벤트의 저작권·라이선스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본 보고서의 시사점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성장할수록 음악 라이선스의 사전 확보와 적정한 저작권료 지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라이선스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됨.

1) FICCI-EY: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FICCI)와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Ernst & Young)의 공동 보고서 발간 주체
2) 1루피(INR)=14.12원(2026.10.01.,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내용 출처 : Storyboard 18, "Recap: India's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y hit Rs 2.78 lakh crore as digital, live events reshape the sector", 2026.09.30., https://www.storyboard18.com/digital/recap-indias-media-and-entertainment-industry-hit-rs-2-78-lakh-crore-as-digital-live-events-reshape-the-sector-111666.htm
ThePrint, "Music, copyrights & licensing in the new age: An ecosystem gradually pivoting to stricter compliance", 2026.05.30., https://theprint.in/judiciary/music-copyrights-licensing-in-the-new-age-an-ecosystem-gradually-pivoting-to-stricter-compliance/2945482/

* 통계 출처 : FICCI-EY, "Stories, scale and impact: FICCI-EY Report 2026", 2026.03.,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in/insights/media-entertainment/documents/ey-stories-scale-and-impact-unlocking-indias-media-and-entertainment-economy.pdf

※ 본 보고서는 EC21R&C(컨설팅사)에서 작성하였고, 국내외 저작권 기술 · 산업 동향을 조사한 자료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